

## 오직 믿음인가? 회개와 믿음인가?(1)

- 읽을 말씀 롬 2:1-11
- 주요 내용

바울이 전한 참 복음과 참 진리의 정확한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당신의 복음은 바울의 복음인가?」 첫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이 주장한 것이 과연 오직 믿음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1. 오직 믿음인가? 회개와 믿음인가?

많은 이들이 회개를 구원의 필수조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오해가 교회에 만연케 된 것은 무엇보다 종교개혁의 슬로건인 ‘오직 믿음!’의 영향이 큼니다. 그로 인해 교회들 안에 명목상의 신자가 넘쳐나고 지옥에 가는 자의 비율이 너무나 높습니다. 이것을 개선하려면, 반드시 오직 믿음인가? 아니면 회개와 믿음인가? 를 규명해야 합니다.

## (1) 바울은 로마서에서 회개와 믿음을 강조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로마서 1장은 이방인은 죄인이다. 2장은 유대인도 죄인이다. 3장은 전 인류가 죄인이며, 그 뒤로는 의롭다 함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3:19-4:25)고 들어왔습니다. 이 모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직 믿음'입니다. 때문에 '오직 믿음'이 성경적인 참 진리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대한 이런 전통적인 해석에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바울이 3장에서 본격적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설명하기 전, 2장에서 그것도 2장 전체를 통해 회개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강조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 것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 실제로 ‘오직 믿음’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을 증거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행 20:21). 그런데 모두들 로마서에서는 믿음만 강조했고 회개가 나오지 않는다고 착각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칭의의 수단으로 '오직 믿음'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로마서 2장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루터를 비롯

해서 개신교의 모든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단체로 이것을 놓쳤습니다. 그 결과 비 성경적인 '오직 믿음'이라는 슬로건이 만들어졌고, 복음이 구원파화 되었습니다.

불완전한 복음을 듣고도 구원받는 사람들은 생겨납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자의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수많은 목회자와 신자가 부패하여 맛 잃은 소금처럼 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2장 전체에서 회개를 강조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큰 의미가 있습니다.

## (2) 로마서 2장은 회개를 강조한 회개장이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믿음과 의롭다 함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는 산상수훈과 매우 유사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강조한 두 가지가 심령의 가난과 애통(마 5:3-4)인데, 바울도 복음을 설명하기 전, 심령을 가난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무려 세 장에 걸쳐 죄를 신랄하게 지적하면서 동시에 2장 전체에서 회개의 절대적인 필요성과 중요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 사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키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말 로마서 2장 전체가 회개를 강조한 것이 맞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1) 로마서 2:1-5

본문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혹은 주로 유대인에게) 한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 예수님, 베드로와 사도들이 모두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마 3:1-2, 4:17, 막 6:12, 행 2:37-38)고 외쳤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곳(롬 2:1-5)에서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을 질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1절과 3절에서 유대인들이 "같은 일을 행한다."고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은 이방인이고, "같은 일"은 이방인이 범하고 있는 죄들입니다. 1장 18-32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방인들과 같은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2장 17-24절도 그것을 뒷받침해줍니다.

유대인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이방인은 회개하지 않아도 될까요? 당연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2장 1-5절에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회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 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5절).

그런데 진노의 반대가 칭의입니다. 칭의는 심판 날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5절에서 회개하라고 촉구하면서 회개가 칭의의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서에서 오직 믿음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오직 믿음에 속아 어떤 주석가나 강해설교자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는 한없이 중요합니다.

## 2) 로마서 2:6-11

모든 학자와 설교자들이 회개를 강조한 것은 5절에서 끝나고 이 단락은 행위 심판에 대해 쓰고 있다고 합니다. 또, 7절과 10절 나오는 “참고 선을 행하는” 혹은 “선을 행하는” 자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한 해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개에 대한 강조가 5절에서 끝났다고 보고, 6절 이하를 회개와 연관시키지 않아서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락은 칭의 교리의 터가 되는 행위심판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종말에 대해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절에 이어 6-11절도 회개에 대한 것입니다.

### ① 문법이 그 증거다.

먼저, 헬라어로 보면 5-6절이 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5절 그리고 6-11절로 서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1-5절이 회개에 대한 것이라면 6-11절도 회개에 대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6절은 관계대명사 '호스' 즉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는 6절이 5절의 종속절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때문에 7절과 10절에 나오는 '선을 행하는 자들'은 회개한 자들이며, 8절과 9절에 나오는 '불의와 악을 행하는 자들'은 회개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전자는 영생을 얻고 후자는 심판 날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② 문맥이 그 증거다.

1-11절을 문맥에 주의하면서 읽어보면, 2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

다는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진리대로” 라는 것은 2-11절에 기록되어 있는 행위심판의 원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단락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회개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 5절의 "진노"는 그 뒤 단락(6-11절)에 나오는 진노와 같은 것으로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11절도 회개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1-5절은 물론, 6-11절도 동일한 유대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을 두 번 언급했지만, 유대인들도 이방인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위심판을 하시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도 계속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절과 6-11절을 끊어서 읽거나 이해하면 안 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6-11절에 나오는 "악을 행하는"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악을 행하는 것으로, "선을 행하는"은 회개했기 때문에 그 뒤 선을 행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계속 회개를 강조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사실은 한없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외면당했던 회개의 긴박한 필요성과 절대적인 중요성을 보여주는 구절들이 모두 100% 되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왜 곳곳에서 회개를 강조하는지(눅 16:30, 눅 13:1-5), 하나님이 왜 회개를 그토록 기뻐하시는지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악인일지라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회개해야 멸망을 피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벧후 3:9). 그러므로 우리 모두 무엇보다 먼저 회개하고, 교회들 안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나도록 이 진리를 널리 퍼트려야 합니다.

## ● 나눔과 적용

구원은 오직 믿음이 아닌 회개와 믿음으로 받습니다. 회개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성과 사할적인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있는지 살펴보고, 내 안에 회개함으로 얻게 된 열매들을 나누어 봅시다.